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Keeping up with the joneses : Who loses out?

▮ David Ulph, 2015, *Economic Letters* 125, pp. 400-403.

본 연구는 엄밀한 수리적 증명을 통해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른바 Keeping up with the joneses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실증분석이 담겨 있지 않은, 수리과학 분야의 논문 특성을 띠고 있으며, 본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이론적 틀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함수와 게임이론의 내쉬 균형이다. 다소 강렬한 논문의 제목에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논문의 첫머리에는 가격이 상승해도 특정 계층의 과소비, 허영심이 야기하는 수요 미감소 효과를 지칭하는 베블렌(1924)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소위 “rat race”라고 지칭되는 이른바 개인의 과소비가 결국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덜 저축을 해서 추가적인 소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치열하고도 극심한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과소비는 베블렌 효과와 keep up with the joneses(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 애를 쓴다는 뜻)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이 자신과 유사한 지위, 계층에 있는(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임금수준을 받는 이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의 행동과 (주관적) 안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수리적 모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Keeping up with the joneses 효과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더 하게 만드는지, 또한 특정 개인들의 안녕 수준이 그들의 임금율의 강한 감소함수의 형태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가장 부유하지 않은 계층이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라는 점을 밝혀보는 것이다.

분석모형의 시작은 개인이 일과 여가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조세 부과/이윤 체계로서 모든 사람들은 면세의 이윤을 받으며, 세후 소득을 받는다. 사람들의 생산성은 차등적인 임금을 부과로서 다르게 표시되며, 일과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행복은 개인이 자신들의 peer(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과 유사한 임금수준을 받는 이들)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지하는 정도로 측정되고(0과 1 사이), 노동 공급은 다른 이들의 평균소비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베블렌 효과 분석을 위한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유보임금이 낮으며, 유보임금으로부터 임금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반비례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곡선으로 나타나나,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들보다 유보임금이 높고 임금율이 증가하면, 주관적 행복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즉, 어떤 개인의 소비성향이 다른 사람의 소비성향에 의존함을 가정하여 볼 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넉넉지 못한 이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뒤쳐지지 않으려 애쓰는 이른바 Keeping up with the joneses의 특징을 보이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논문의 말미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더 심도 있는 면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Are natural resources bad for health?

■ Amany A. El Anshasy, Marina-Selini Katsaiti, 2015, *Health & Place* 126, pp.25-27.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건강에 대한 낮은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Fogel, 1994; Barro, 1998; Rivera et al, 1999; van Jon et al, 2001; Howitt, 2005)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과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반면 나쁜 건강수준은 신체적 업무능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개발도상국이 빈곤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bhargava et al, 2001). 아울러 chakravorty(2004)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높은 사망률과 저축과 교육에 대한 수익을 저하시키는 짧은 기대여명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짧게 언급된 이러한 일련의 동태(dynamics)는 자원의존적인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개발) 붐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건강 측면에서의 인적자원 축적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지리적, 역사적 요소들의 고정효과, 정치적 부정부패, 독재 체제, 소득수준, 초기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이 지출과 결과(기대여명, 만성건강질환)로서 표현된 자원 중심의 개발(자원 의존도)과 건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 중심의 개발이 참으로 낮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 건강수준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논문의 그림 1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대여명과 부(-)의 관계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 기령, 탄화수소의 국민총

소득 대비 지대의 비율은 기대여명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물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모호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출 대비 1차 농산물 수출 비율의 경우에는 탄화수소의 경우보다 더 부(-)의 관계 정도가 심하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특히 높은 자원집약수준에서는 거의 유의하지 않다. 저자에 따르면, 탄화수소와 광물의 경우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반면, 1차 농산물 수출의 경우 부의 관계가 명확하고 매우 유의하게 도출된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심도있는 문헌 고찰을 통해 천연자원과 인적자본, 건강(건강수준과 건강지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헌들이 별로 없고, 게다가 이들의 결론 역시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천연 자원과 건강지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일국의 경제 구조에서 여러 천연자원의 의존도가 낮은 건강지출과 관련이 있는지, 국가별로 시계열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패널회귀모형을 분석방법론으로 채택한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간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여러 다른 관찰되지 않은 시불변 특성을 고정효과로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과 건강수준(당뇨, 비만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횡단면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패널모형과는 다르게 시불변 특성에서의 국가 간 이질성이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한 개의 변수로 묶어 직접 통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프협력회의(GCC),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여러 대륙의 118개 국가, 1990~2008년의 기간 동안의 불균형 패널(데이터가 일부 국가의 경우 기간 내 누락되어 있기도 하므로) 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강지출과 건강수준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농산물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높은 건강지출과 더불어 높은 기대여명, 낮은 당뇨병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또한 건강지출은 높은 광물 의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지출이 증가할수록 광물 의존도가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탄화수소 지대의 경우 낮은 당뇨병과 낮은 비만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원과 독재체제 여부 터미의 상호작용 변수를 함께 고려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건강지출은 엄청난 탄화수소자원 집약도로 인해 경제규모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의 규모는 비민주적인(독재 체제) 국가에서 더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지출의 효율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정부) 지출 증가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지표)로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ich equality matters?

■ Neyer, G., Lappegård, T. & Vignoli, 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3),
pp.245-272, 2013.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젠더의 평등(gender equality)이 중요한 요인인가? 이 질문은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인구학자들 간의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론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저출산과 낮은 출산의도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들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 한 가지 이유는, 젠더 평등의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젠더 평등은 단지 분배의 동등함의 개념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개념화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젠더 평등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와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고용, 재정자원, 가사일에 대한 젠더 평등의 세 차원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 재정자원, 가사일은 각각 다음의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 (1) 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2)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가사일과 돌봄에서의 평등. 이 논문은 European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s를 사용하여, 앞서의 요인들이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출산의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이 논문의 결과는 젠더 평등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평등에 대한 더 미묘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젠더 평등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젠더와 출생아 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effect of grandparental support on mother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 Arpino, B., Pronzato, C. D. & Tavares, L. P.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pp.369–390, 2014.

아이돌봄의 형태는 모성과 근로를 결합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따라서 아이돌봄에 대한 접근성과 이의 사용은 매우 큰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공식적인 아이돌봄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되고 개념화하는 여성 노동공급의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아이돌봄 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이해된다. 이 모델에서는 낮은 아이돌봄 비용이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참여를 가져오며, 여러 연구들은 이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화폐의 비용이 들지 않는 친척으로부터의 비공식 아이돌봄을 사용한다. 이 논문은 돌봄 중에서도 비공식 돌봄, 그리고 비공식 돌봄 중에서도 조부모에 의해서 제공되는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실증적으로, 조부모 돌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관찰되지 않는 선호로 인해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은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 근거해서, 조부모 돌봄의 이용가능성의 차이와 조부모의 아이돌봄의 선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의 자료를 대상으로 도구변수 접근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부모 돌봄은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영향의 크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은 어린 아이가 있고 북부와 중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더 강하였다.

The estimation of fertility effects on happiness: Even more difficult than usually acknowledged

▮ Kravdal, Ø.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3), pp.263-290, 2014.

가정에서의 아이의 수가 부모 또는 아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 한 가지 흐름은 출산이 부모의 주관적인 웰빙 또는 행복(self-reported well-being or happiness)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적인 행복은 많은 정보를 주는 정보는 아닌데, 그 이유는 개인들이 아이로부터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익들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영향은 추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매우 적게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이대로가 그들에게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행복과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아이가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별로 주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한 사건의 발생이 이질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추정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출산-행복 연구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여기에는 표준적인 선택 문제가 존재한다.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는 이를 충족시키는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사용된 가장 최신의 통계적 접근들도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되어 보고된 결과들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유의해야만 한다.

Do family support environments influence fertility? Evidence from 20 European countries

▮ Harknett, K., Billari, F. C. & Medalia, C. 30(1), pp.1-33, 2014.

선진국들의 출산수준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긴급한 정책과 연구 문제였다.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출산율은 대체율 수준과 비슷하였지만, 남부, 중부, 동부 유럽의 출산율은 1.3 이하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였다. European Social Survey의 최근의 두 개의 웨이브를 사용하여, 이 논문은 아이 돌봄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지원들과 개인 수준의 출산 결과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국가수준의 아이돌봄의 지원 환경에 제도적 요인들, 노동시장, 가족형태, 남성 파트너에 대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논문은 가족 지원 환경 지표들과 둘째 또는 그 이상의 출산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대조적으로, 가족

지원 환경 지표들과 첫째 출산 간의 관계는 약하였으며 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패턴은 첫째 아이의 출산보다는 둘째 그리고 그 이후의 출산이 더 중요한 실제적인 고려요인이라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지원 형태들이 출산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아이 돌봄 지지의 세대 간 교환과 높은 순위의 출산 간

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분석은 또한 거시적 수준의 지원 환경들이 출산계획도 출산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출산계획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출산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논리를 지지한다.